

# “과도한 배당 압박에 빚까지… 지역은행 경쟁력 흔들”

## 광주은행 노조, JB지주 겨냥 1000억 증권 발행 우려 은행 측 “안정적 BIS 관리 필요… 당초 사업범위 내”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최근 광주은행이 추진 중인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과도한 배당 압박이라 규정하고,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광주은행 측은 당초 올해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며 노조 측이 제기한 주장을 일축했다.

광주은행 노조는 4일 광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은행이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지주사의 지나친 배당 요구에 따라 취약해진 규제자본비율(BIS) 관리

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통상 금융권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당기순익의 일부를 유보하거나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한다”며 “그러나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은 지속적인 과도한 배당 요구로 은행의 기초체력인 자기자본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지역 은행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광주은행이 내년 추진할 ‘고객 리벨런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이들은 “현재 광주은행은 고객 리벨런싱이라는 명목하에 지역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자 부담 가중 계획을 짜고 있다”며 “이는 이익이 적게 나는 고객은 빼내고 리스크가 큰 이익이 많이 나는 고객만 챙기겠다는 전향한 자본주의 심보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은행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금융의 포용성, 상생의 가치, 지역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정이다”고 덧붙였다.

박만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과도한 배당을 위해 자회사에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과하는 부당행위”라며 “이는 지배주주인 지주와 자사주 16만주를 소유한 김기홍 회장의 사익을 위해 자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배임 행위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 측은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올해 은행 사업계획에 반영된 금액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2021년 700억원 만기상환 이후 순익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 왔으나 공공기관 금고 선정, 정부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 비율 관리가 필요해 올해 사업계획에 따라 1000억원 범위 내로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이후 9년 만에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 보통자본비율은 양호하지만 기본 및 총자본비율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어 기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충분한 버퍼 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박만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이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 광주은행,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금융지원

### 25억원 규모 보증대출 공급… 기업당 최대 5억원

광주은행은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광주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

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제도 도입 초기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퇴직연금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이번 사업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료 지원금을 포함한 특별 출연금 1억원을 출연했으며, 이를 기반

으로 약 25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

급한다. 지역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하도록 실질적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출상품은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의 운전자금으로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단, 퇴직연금 도입이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은 부담금 납입 이력이 1회 이상 필요하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적 노후 준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 블루카본 ‘잘피’ 군락지 조성 한전, 군산 바다에 8만주 이상

한국전력이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양 탄소흡수원(블루카본)인 ‘잘피’의 군락지 조성에 힘쓰고 있다.

4일 한전에 따르면 블루카본은 바다와 해초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산림 등 육상의 탄소흡수원인 ‘그린카본’보다 50배 이상 빠르게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

또한 탄소 저장 능력도 2배 이상 높아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수산업공단과 함께 지난해 전남 완도 연안에 ‘잘피 숲’ 3ha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전북 군산시 장지도 연안 2ha 면적의 바닷속에 잘피 8만주를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한전이 블루카본으로 이식한 ‘잘피’는 바다 속에서 쫓을 피우는 해초류로 맹그로브 숲, 염습지와 함께 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공식 인증한 3대 블루카본 중 하나다.

완도·군산 지역에 5ha 규모의 잘피 군락지는 용량이 1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약 2500t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전은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서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ESG 경영과 환경보전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 남광주농협, 김장김치 나눔 행사 250가구 분량… 취약계층에 전달

남광주농협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광주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부녀회,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등 여성단체 회원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성껏 절임 배추를 버무리며 250가구 분량의 김치를 직접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관내 독거노인과 경로당,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했다.

남광주농협은 매년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김장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정성을 담은 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이웃 사랑과 상생의 의미가 되새기고 있다.

이영중 남광주농협 조합장은 “매년 추운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다해 참여해 주시는 여성단체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사랑과 온정이 가득 담긴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전남 에너지기업 중앙아시아 진출 돕는다

## 도,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서 ‘에너지위크’ 개최 14개 기업 참여… 재생에너지·전략인프라 협약 성과

전남도가 지역 에너지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5일까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중앙아시아 에너지위크를 개최한다.

에너지위크는 전남도가 지역 에너지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한 기업 지원사업이다. 올해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동신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태양광·소수력 발전 기업 등 14개 기업이 참여했다.

지난 2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에너지위크에서는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와 재생에너지 및 전력계통 분



전남도는 최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중앙아시아 에너지위크를 개최하고 지역 에너지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야 정책교류와 기술협력, 시범사업 등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정책 우호 교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어 열린 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선 키

르기스스탄 경제부에서 지역에너지 군행을 위한 키르기스스탄의 역할을 소개하고, 전남테크노파크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남도 에너지정책을 발표

해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수출상담회에서는 전남 12개 에너지 기업과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관계자, 현지 바이어가 다수 참여해 기술

소개와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전남 기업 컨소시엄은 현지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4~5일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이동해 에너지위크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타슈켄트에서는 현지 프로젝트 매니저와 바이어를 상대로 지역 기업 컨소시엄의 기술 소개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내 재생에너지·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모색한다.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위크를 통해 전남도의 해외 협력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이라며 “에너지 기업이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가전산업 스탭업서포트’ 연계 성과 공유

### 61개사 대상 성장 로드맵 수립 등 맞춤 지원

광주상공회의소는 4일 청사 회의실에서 올해 가전 관련 중소기업 지원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가전산업 스탭업서포트-연계사업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추진 중인 ‘지역혁신프로젝트-가전 내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 한 해 진행된 기업지원 컨설팅 성과와 우수사례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가전산업 스탭업서포트’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추진돼 광주·전남 지역 가전 및 융합 업종 중소기업 6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전, AI, 디스플레이, 로봇, 시

에 맞는 지원 체계가 한층 정교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신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구성된 3개 컨소시엄(6개사)은 무균청정 펌트 하우스, AIoT, AI메테리 디스플레이, UV기반 광촉매 살균 펌트기정정기 등 혁신 제품을 개발했다.

각 컨소시엄에는 최대 8000만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컨설팅·시제품 제작·디자인 개발을 아우르는 통합형 지원으로 높은 만족도와 우수한 성과를 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가전산업 스탭업서포트 사업은 단순한 컨설팅을 넘어 지역 가전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 지원과 우수한 성과를 확인한 만큼 내년에 더욱 강화된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 인터넷진흥원, 스미싱 피해 예방·대응 강화

### 카카오뱅크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카카오뱅크와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술 협약은 안전한 금융 환경 조성과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스미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진흥원이 다년간 스미싱 탐지·대응 과정에서 축적해 온 국가 사이버 위협 데이터와 이에 대한 분석기술이 카카오뱅크의 ‘인공지능(AI) 스미싱 확인 서비스’에 적용된다.

해당 기술은 카카오뱅크 이용자가 ‘AI 스미싱 확인 서비스’에 스미싱 의심 메시지를 조회하면, 진흥원의 ‘스미싱 확인 서비스’ 분석 기능과 카카오뱅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 분석기술이 함께 작동해 문자 내용과 링크(URL)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원리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카카오뱅크와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다.

작동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더욱 정확한 스미싱 판별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술 연계로 이용자는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정확도가 향상된 스미싱 분석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신고 가능한 의심 메시지 유형에도 제한이 없어,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경로로부터 유통되는 신규 스미싱 유형까지 대응 범위가

확대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뱅크와의 협약이 스미싱 피해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금융권·통신사·플랫폼 기업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스미싱 및 악성 앱 기반 사기 피해 예방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